

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December 07, 2025, 10:30 a.m.

대강절 두번째 주일 (Year A)

Second Sunday of Advent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예배 순서 WORSHIP OR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예배 기도 Invoca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104 곧 오소서 임마누엘 (Em) O Come O Come Immanuel

C1030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A) The Days of Elijah

C1249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G) The Lord Has Displayed His Glory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i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되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마태복음 Matthew 3:1-12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침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다 John the Baptist Prepares the Way

III 화답 Response

성찬식 The Holy Communion다같이 All Together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수요 성경 공부 매주 수요일 8 시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 Lottie Moon 크리스마스 헌금
-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 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이사야 ISAIAH 11:1-10

-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 2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 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 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 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 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 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시편 PSALM 72:1-7, 18-19

- 1 하나님이며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 2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 3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 4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 5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 6 그는 뱀 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 7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 18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 19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8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 또 이르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 공부 초점: 소망

생명의 말씀

소망!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 장 4 절, 개역개정)

구약에 나타난,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었던 예언자들의 말을 생각해 보세요. 소망을 가졌던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1. 어떤 구약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나요?
2.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서로 한마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 장 5-6 절, 개역개정)

사도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그립니다. “뜻을 같이하여 사는 것”과 “한 입으로 행동하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3.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쉽거나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4. 교회가 “서로 뜻이 같게”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소망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만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포용적 비전은 광대하며 급진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고 말한 사람은 바울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방인을 향한 소망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넘어서 더 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15 장 9-13 절에는 이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가 일어나서 이방을 다스리며 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5 장 12 절, 개역개정) 예수님의 가계의 뿌리는 다윗과 그의 아버지 이새를 포함하지만, 그 가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다음 말로 끝맺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 장 13 절, 개역개정)

5.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그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6. 소망이 넘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작은 교회 예배당 앞쪽에 찬양대가 자리를 잡고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에서 전주가 막 연주되기 시작할 때, 걸음으로 봐도 배우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한 젊은 여성 성인이 매우 기쁜 마음으로 광충광충 뛰어오며 찬양대에 합류했습니다. 찬양대는 즉시 그녀를 환영했고, 부드럽게 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찬양대가 이 열정적인 찬양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찬양대는 그 젊은 여성이 내는 여러 소리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하게 찬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 혹은 음을 오래 끌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음을 내든, 그것은 큰 열정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음악적 완성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오래 기억에 남는 곡이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재능과 훈련을 갖춘 다른 교회 찬양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대만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찬양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찬양대가 비록 같은 음정이나 페이지를 맞추지 못했더라도 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7. 찬양대에게 완벽한 연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8. 찬양대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나요?

바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 장 5-6 절, 개역개정)

우리가 ‘조화’와 ‘한 목소리’를 생각할 때 흔히 찬양대를 떠올립니다. 찬양대는 그 음악으로 종종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만, 개개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협력과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 어떤 요소들이 회중이 '한 목소리'가 되는 것을 방해할까요?
- 교회는 효과적인 찬양대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나요?
- 성령께서는 조화롭게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우리 삶에서 믿음 실천하기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관되게 울려 퍼지는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망은 분명히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소망은 믿음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과 함께 주어집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소망을 심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만질 때, 그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로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서로 다른 개별적 목소리들이지만, 하나의 목소리로 빚어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 그리스도의 소망은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 된 목소리로 형성할까요?
-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이 매력적인가요?
-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 안의 소망은 다가오는 한 주의 결정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말씀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하는 기회에 귀를 기울이세요.

기도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하시어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GOSPEL 마태복음 MATTHEW 3:1-12

1 그 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5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6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1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